

동남아시아 MYANMAR 를 사랑과 복음으로 섬기는 최세희, 송민아 (다운, 시윤, 하윤) 선교사



어린이사역지원센터- 복음과 꿈이 자라나는 곳

9-12월에는 '더자람 어린이사역지원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토양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에서는 사복음서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삶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매주 말씀 속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며 겸손과 순종의 삶을 배우고 있습니다. 주일학교와 문화교실을 통해 아이들은 말씀과 배움을 함께 경험하며, 불안한 일상 속에서도 규칙적인 하루와 안전한 공간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의 진지한 눈빛 속에서 짧은 말씀이지만, 아이들의 마음에는 복음의 씨앗이 분명히 심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후원 교회와 동역자님께,
미얀마 양곤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
시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2025년의 마지막 달을 보내며
저희 더자람 미션은 양곤의 어린이들과 이웃들을 섬기며
참으로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
지만, 주님께서 채워주신 사랑과 동역자님들의 따뜻한
기도로 모든 사역이 풍성하게 '더 자랄' 수 있었습니다.



더자람 교회 - “작지만 살아 있는 예배”



더자람 교회에서는 매주 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기도가 예배를 채웠습니
다. 작은 예배당이지만, 이곳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처음으로
만나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탄절을 준비하며 진행한 성탄
예배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다시 나누며, 아이들과 교사 모두
가 복음의 본질 앞에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매 주말 빈민지역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을 열어 학업을 돕고 있습
니다. 공부방 사역의 핵심은 슬럼가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나는 쓸모
없는 존재야"라고 생각하며 기죽어 있던 아이들에게, 우리는 매주 꿈을
심어줍니다. 공부방은 저와 교사들이 항상 관심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기다려주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환경에 굴하지 않고 미얀마의 미래를
책임질 정직하고 지혜로운 리더로 자라나도록 돕고 있습니다.



“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마십시오.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으면,
때가 되어 좋은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 힘쓰십시오. 믿음
의 공동체 안에 있는
가까운사람들에게부터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9-10절 메시지 성경)



또한 새해 첫 주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가정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아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이 많아져 영양가 있는 간식으로 매주 한끼 ‘무료급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재정과 자원이 채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더자람 교회학교 아이들 가정심방 - "삶의 자리에서 만난 복음"



12월의 교회 주변 빈민지역의 가정들은 성탄의 기쁨과는 달리, 여전히 많은 가정이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하는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 계절에 아이들이 다니는 교회를 벗어나, 아이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가정의 문을 두드리는 가정심방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좁은 골목 끝, 대나무를 엮어 뼈대를 세우고, 판자들을 붙여 만든 작은 방 한 칸에서 여러 식구가 함께 살아가는 아이들.., 우기에는 항상 물이 스며 들고, 겨울에는 찬 바람이 훑고 지나가는 그 집에서 가장 먼저 느낀 것은 결핍이 아니라, 아이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과 그곳에서도 해맑게 웃고 있는 아이들을 향한 감사였습니다. 가정심방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부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짧게라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복음은 자연스럽게 집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겨울 가정심방은, 선교사 스스로도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성탄의 의미를 다시 배우는 시간입니다. 가난한 환경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가정임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이 방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앞으로도 더자람 사역은 아이들만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 전체와 함께 걷는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사역지원센터 이사 - "공간은 옮겨도 사랑은 머무릅니다"

현재 어린이 사역지원센터는 매년 상가건물에 임대료를 지불하고, 4년째 사역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경제불안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집주인들이 더 높은 임대료를 제시하는 새로운 세입자를 찾고 있어, 매년 계약이 만료되면 재계약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어린이사역 지원센터는 매년 갑작스럽게 새로운 장소를 찾아 이전을 해야만 합니다. 이사의 과정 속에서 여러 어려움과 부담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도움과 사람들을 예비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장소는 매년 바뀌지만, 그 안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아이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장소로 옮길 때마다 그 지역의 또 다른 아이들을 만나게 하시고, 더 넓은 지경으로 더자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이들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Bible Tales for Kids (어린이성경영상동화) 유튜브 채널 개설

미얀마 양곤의 척박한 땅에서 아이들의 영의 갈급함을 채워고자 노력하는 더자람 미션입니다. 이번 사분기에 가장 뜻깊은 결실 중 하나인 어린이 성경 영상 동화 채널 개설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보고드립니다. 미얀마는 현재 여러 정치적,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아이들이 교회나 센터로 모이는데 제약이 많습니다. 또한, 현지어로 된 양질의 어린이 성경 콘텐츠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는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없다면, 복음이 아이들의 손안으로 찾아가게 하자’는 비전을 품었습니다.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성경 이야기 영상, 쉽고 반복적으로 들을 수 있는 복음 중심의 메시지, 가정과 센터, 교회 어디에서나 활용 가능한 교육용 콘텐츠를 목표로 한국의 리틀 성경동화 시리즈를 미얀마어 성경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하여 업로드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구약40권, 신약 20권으로 총 60권 전권을 제작하는 프로젝트이며, 현재 구약 7권, 신약7권이 제작되어 업로드 되어있습니다. 유튜브에서 ‘The More Growth: Bible Tales for Kids’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Blessing Recycling 센터 - “도심선교의 시작”



블레싱 리사이클링 센터'는 자원의 재활용을 넘어, 사람과 사람을 잇는 문화와 나눔의 도심선교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주신 중고 물품을 활용하여, 하반기에는 “아웃과 함께하는 사랑나눔 바자회”와 “성탄절 이웃초청 바자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물건을 구한 주민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바자회 수익금은 다시 공부방 아이들의 간식비와 어려운 이웃의 구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나눔이 또 다른 나눔을 낳는 이 아름다운 순환을 통해, 양곤 도심 한복판에 예수님의 사랑이 눈에 보이는 '실체'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또한 물건들이 쌓여 있던 센터의 한편은 매 주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어린이 문화센터’로 변신합니다. 주변 도시의 아이들이 모여 미술교실, 핸드메이드교실, 음악과 영어를 배우며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합니다. 리사이클링 센터의 재료들은 아이들의 손을 거쳐 멋진 예술 작품이 되고, 아이들은 “나도 무언가 아름다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리사이클링 센터는 그렇게 지역 주민들의 문턱을 낮추고 복음의 향기를 흠뻑 보내는 첫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총회세계선교부 사회봉사부 임원단 방문 및 간담회 /9.1-9.5

미얀마에 발생한 지진 피해로 인해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총회세계선교부 사회봉사부 임원단이 미얀마를 방문하여 구호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미얀마 PCK 현지회 지진피해 구호금 전달과 더불어, 만달레이 PCM 센터에 5만 달러의 구호금 전달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피해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현지 교회 및 사역자들과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는데, 저도 이번 미얀마 PCK현지회 총무로 선출되어 섬길 수 있어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사회봉사부 임원단과 미얀마 PCK현지회 회원들 간의 간담회를 통해, 지진 피해로 인한 교회와 성도들의 상황을 공유하고, 단기적 긴급 구호를 넘어 중·장기적인 회복과 재건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운 시윤 하윤 소식

다운이는 새해를 맞아 한인 교회의 아동부에서 중등부로 진급하게 되어, 기대에 부푼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운이의 마음속은 90% 아이돌 '스트레이 키즈'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 때때로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사춘기 소녀로서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둘째인 시윤이는 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는 장난꾸러기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가끔 장난이 지나쳐 혼나기도 하지만, 형제들 중 가장 순하고 단순한 성격 덕분에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적응하고 있어 대견스럽습니다.

형과는 달리 감수성이 풍부하고 눈치가 빠른 하윤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며 막내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 하윤이는 도시락 가방이 무거워 교실로 들어가던 중 중심을 잃고 넘어져 턱을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다행히 뼈에 이상이 없어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은퇴를 하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연로하신 의사 선생님이 떠는 손을 붙잡아가며 바늘로 꿰매시는 모습에 적잖이 놀라기도 했지만, 아이가 움직이지 않도록 아빠는 머리를, 엄마는 다리를 잡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행히도 잘 봉합이 되었고, 흉터가 남긴했지만 턱이라 잘 보이지 않아 감사했습니다. 의료 시설이 열악한 미얀마에서 아이들이 무탈하게 지내는 것만으로도 큰 은혜임을 새삼 느낍니다.



미얀마 명절, 론자 입고 학교가기



미얀마를 위한 기도

1. 미얀마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과 가정이 하나님의 평안과 보호 안에 있도록
2. '더저람 Bible Tales for Kids' 유튜브 채널과 리사이클링 센터의 도심선교 등 새롭게 확장되는 사역들 속에서,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분별하는 지혜를 주소서
3. 현지 사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강건함을 주셔서 섬김이 지치지 않도록
4. 가정심방과 구호 사역을 통해 복음의 위로와 회복이 각 가정에 임하도록

가정을 위한 기도

1. 선교사 가정의 영적·육적 건강과 안전을 지켜 주시도록
2. 부부와 자녀 관계 가운데 사랑과 연합, 기쁨이 날마다 회복되도록
3. 사역의 열매보다 먼저 가정이 쉼과 위로를 누리도록
4. 외로움과 부담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망을 붙들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목사님과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사역, 그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2025년 12월 30일

최세희, 송민아 선교사
다운, 시윤, 하윤 올림